

언어 생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황성규

문화일보 기자

1. 머리말

1999년 9월 초, 핀란드의 한 휴양지에서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터키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과 동티모르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그러나 정작 회담의 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우리 나라 말이 왜 공용어가 안 되느냐”고 따지는 각국 장관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언어와 관련한 지구촌 얘기는 또 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6,809개 언어 가운데 90%가 10만 명 이하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7개 언어는 사용자가 채 50명도 안 되며, 사용자가 한 명밖에 안 되는 언어도 46개나 된다고 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 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4.5%의 언어가 소멸됐는데, 이는 조류(1.3%)와 포유류(1.9%)의 멸종 비율보다 높은 수치라고 한다.²⁾ 1995년에 출간된 자료에 따

1) 차재국, 《세계 언어 탐방과 문화 산책》(2002, 서울 : 한국문화사), p. 93.

르면, 한국어는 6,0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모국어 사용자 수로 보면 세계 16위, 공용어 사용자 수로 보면 15위에 올라 있다.³⁾ 하지만 우리말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 순위가 뒤로 밀려나다가 마침내는 소멸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20세기 말부터 정보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국어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 언어 생활이 일반화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약어 사용이 늘어나는가 하면, 띄어쓰기와 이름 표기 등의 측면에서 인쇄 매체간에 혼란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혼란상은 인터넷과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전송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잘못 표기된 문자 언어가 바로잡히지도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언중에게 전해짐으로써 어느 표기가 바른말이고, 그른 말인지 언중이 헷갈리게 하는 역기능도 함께 전송하는 셈이다. 이는 마침내 남북한 주민간의 언어 이질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터넷 같은 온라인 상의 각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이른바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기와 비표준어 등 교정되지 않은 낱말이나 문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글쓴이의 무지나 무관심, 또는 고집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각 사이트 관리자나 인쇄 매체 제작 관계자 및 발행인 등의 관심 소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언중을 대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국민의 문자 언어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각종 어문 규정을 제대로 지킬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제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품게 한다.

2) 《조선일보》 2003. 5. 17. 11면 참조.

3) 차재국. 전계서. p. 63; 문화관광부의 자료에서는, 남북한 인구 7,000만 명에 제외 동포 약 550만 명을 더하여 국어 사용자 수가 7,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2003. 4, 서울 : 문화관광부). p. 87.

여기서는, 국민의 언어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 가운데 신문 기사 속의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 인명 표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 하나, 남북한 주민 간 언어 이질화 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짧은 기간에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동시에 국어의 혼란상이 우리 말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 혼란의 실상

국어 문법과 관련한 규범은 크게 보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네 가지가 있다. 이는 단지 정부가 공포한 공식 어문 규정으로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신문사나 잡지사, 출판사 등 인쇄 매체를 발행하는 곳에서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여 통일된 표기를 하다 보니 ‘1사(社) 1문법’ 식의 어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⁴⁾ 대표적인 예가 각 신문과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잡지이다. 신문사에서 정기간행물로서의 품위와 독자 계도, 기사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 등 여러 필요에 따라 어문 규범을 대체로 충실히 지키는 편이다.

이를 위해 신문사마다 많게는 10여 명의 교열(교정)자를 두고 있다. 교열자들은 취재 기자들이 쓴 기사가 인쇄되기 전 단계의 제작 과정에 참여, 낱말-문장-문맥상의 각종 오류들을 바로잡는다. 잡지사의 경우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차이가 있다면, 잡지는 일간 신문보다 제작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점과 그만큼 교열 시간이 길다는 점일 것이다.

4) 《圖書新聞》1995. 8. 21. 2면 〈한글 맞춤법의 실제와 적용①-맞춤법 따로 출판사 따로〉(박진희 기자) 참조.

2.1. 신문에 나타난 언어의 혼란상

2002년 11월 말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일간지는 일반 일간 88종, 특수 일간 28종, 외국어 7종 등 123종이다.⁵⁾ 잡지의 경우 2002년 11월 말 현재 7,125종이 문화관광부 또는 각 시도에 정기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⁶⁾ 그리고 출판사는 2001년 12월 말 현재 1만 7,239개 사가 등록돼 있으며, 2001년 한 해 동안 모두 3만 4,279종 1억 1,717만 2,347부를 발행했다.⁷⁾

이 가운데 10개 전국 종합 일간지⁸⁾의 경우, 본문은 한글 가로쓰기 체제이나 제목에서는 한자나 영문을 섞어 쓰기도 한다. 다만, 《한겨레》 신문은 순 한글 가로쓰기를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표기에 있어서 작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띄어쓰기라든지, 외래어 표기, 숫자 표기, 순화 용어 사용, 단위어 사용 등이 신문사별로 조금씩 다른 것이다.

1) 띄어쓰기의 혼란상

신문사 교열자 사이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우스갯말 두 가지가 전해 온다.

“더운 여름에는 띄어 쓰고, 추운 겨울에는 붙여 쓴다. 그리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가을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헷갈릴 때에는 붙여 쓴다. 반드시 붙여 적어야 할 낱말을 띄어 쓰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지만 띄어 써야 할 낱말은 앞 말에 붙여 적더라도 큰 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 《2002 문화산업 백서》(2002, 문화관광부). pp. 213~214.

6) 상계서. pp. 242~243.

7) 전계서, pp. 178~179.

8)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이런 말들은 국어와 한글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띄어쓰기 역시 고도의 이론을 배경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일반이 이해하고 지키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⁹⁾는 지적을 잘 입증해 준다.

실제로 신문에서의 띄어쓰기는 들쭉날쭉하다.¹⁰⁾ 신문사별로 다르기도 하고, 같은 신문이라도 날짜별로 다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신문, 같은 날짜라 할지라도 지면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지면에 실린 기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나의 기사 안에서도 띄어쓰기가 제각각인 경우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사를 쓴 기자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명의 교열자가 작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띄어쓰기 규정이 복잡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띄어쓰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¹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의 띄어쓰기는 지면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띄어쓰기 규정을 더러 여기기도 한다.

특히, 신문에서는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의 규정과 달리하는 두어 가지 내부 규정이 있다. 각종 단위어와 호칭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용어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이 앞 말에 붙여 쓰고 있다.¹²⁾

비교적 최근에 나온 《대한매일》과 《조선일보》의 표기 원칙을 살펴보자.

“④호칭이나 직위, 학위 등은 성이나 이름 다음에 띄어 쓴다.

②단 ‘씨’, ‘양’, ‘군’, ‘옹’ 등 외자의 호칭은 붙여 쓴다. (국립국어연구원의 감수에 따르면 ‘씨’는 성, 이름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10)‘숫자’와 ‘수대명사’는 붙여 쓴다.”

- 《대한매일》¹³⁾

9) 《독립신문 100돌기념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下)》〈제10장 북한 말글 제3절 맞춤법 비교(송기중)〉(1996, 서울 : 한국프레스센터·한국교열기자회), pp. 517~518.

10)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2002, 국립국어연구원), pp. 140~244.

11) 앞에서 소개한 신문사 안의 우스갯말에 잘 나타나 있다.

12) 이러한 사례는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상계서, (pp. 140~244.)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13) 《대한매일 기자매뉴얼·교열편람》(2002, 서울 : 대한매일 편집국), p. 24, p. 30.

“⑥단위명사는 띄어 쓴다.

☞ 차 한 대, 집 한 채, 신발 두 켤레

그러나 ‘삼학년’, ‘6층’, ‘2001년’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쓸 때는 붙여 쓴다. 단, 화폐단위인 원·달러 등은 숫자와 어울리지 않아도 붙여 쓸 수 있다.

☞ 37만 원=37만원, 10억 달러=10억달러”

“⑭성명 뒤에 붙는 호칭어나 직함은 띄어 쓴다.

☞ 한인옥 여사, 정주영 회장, 윤관 대법원장

그러나 ‘씨’ ‘군’ ‘양’ ‘옹’ 등 외자로 된 호칭어는 붙여 쓴다. 붙여 씀으로써 성명과 구분이 안 될 때는 괄호 속에 한자를 넣는다.

☞ 홍길동씨, 박철수군(君), 새뮤얼 존슨씨, 다나카 가쿠에이씨(氏)”

- 《조선일보》14)

《문화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표기 원칙을 규정한 ‘스타일북’ 또는 ‘편람’이 여러 해 전에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밝히지 않았다.¹⁵⁾ 하지만 이들 신문도 단위어와 호칭어의 실제 표기에 있어서는 다른 신문과 비슷하다.

신문에서 띄어쓰기가 혼란스러운 것은 과거 인쇄 방식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활판 인쇄 시절에는, 문선된 기사를 교열 단계에서 띄어쓰기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판부서의 작업이 매우 복잡해지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이전에는 습관이 되어 있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제작 방식을 택하고 있어 띄어쓰기 작업이 전체 제작 공정에 그다지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띄어쓰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대개는 글자 수가 늘어 편집자가 그려둔 레이아웃이 잘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편집자에게는 추가로 문장을 잘라내어 기사 분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14) 《조선일보 기자 매뉴얼》(2000, 서울 : 朝鮮日報社). pp. 126~127.

15) 《문화스타일북》(1995, 서울 : 문화일보); 《表記便覽》(1992, 서울 : 每日經濟新聞社).

2) 외래어 표기의 혼란상

교열자들이 신문 제작 과정에서 취재 기자와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을 예로 든다면 외래어 표기일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용어¹⁶⁾ 가운데는 대다수가 외국어 또는 외래어다.¹⁷⁾

흔히 말하는 ‘지구촌 시대’는 세계를 안방으로까지 끌어들인다. 잦은 정변으로 정치인들이 금방 바뀌기도 하고,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등으로 무명의 인사가 하루아침에 뉴스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일도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양산되는 제품(하드웨어)과 그 사용에 따르는 제품(소프트웨어)은 늘 새로운 이름들을 내놓다시피 한다.

스포츠·레저 분야도 마찬가지다. 각종 운동 경기의 선수 이름과 대회 개최지 이름 및 전문 용어 등이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그 밖에, 음악·미술·문학·영화 등 예술 작품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해당 분야의 외국인 예술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우상으로 떠오르는 일도 비밀비재다. 그에 따라 외국인 이름과 작품 이름, 관련 지명 등 술한 외래어가 하루가 멀다하고 지면에 나타난다.

표기의 혼란에 휩싸였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가장 최근에 외래어 표기 문제로 논란이 있는 인물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 팀의 감독 ‘Humberto M. J. Coelho’다. 그는 1950년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포르투갈과 모로코의 축구 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그가 국가 대표 팀 감독으로 최종 선임되기 전에는 ‘코엘류’ ‘코엘유’ ‘코엘요’ ‘코엘뇨’ 등 여러 가지 표기로 국내 신문 기사에 소개됐다. ‘Coelho’는 보통명

16) 인포 시티, 굿모닝 이코노미, 메트로 라이프, ...리뷰 등 각 신문의 머리띠에 붙어 있는 지면 안내 간판을 지적하면서 “한글날을 맞아 ‘컬쳐 페이지’, ‘아트 스페이스’, ‘네오 포커스’ 난에 어떤 글을 실을지 자못 궁급하다.”고 자성을 촉구한 기사도 있다. 《기자 협회보》〈차라리 영자신문을 만들지...〉(박상주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1998. 3. 30. 2면 참조.

17) 일반적으로 외국어와 외래어를 합쳐서 외래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로 쓰일 때는 토끼·수토끼·집토끼 또는 토끼가죽을 뜻하지만, 고유명사로는 포르투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姓)의 하나다. 이 성의 알파벳 가운데 ‘lh’는 [l]의 구개음이다. 따라서 그 뒤의 모음 ‘o’와 합쳐져 ‘류’로 표기된다.¹⁸⁾ 지난해 월드컵 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브라질의 축구 선수 ‘호나우디뉴(Ronaldinho)’의 ‘nho’도 마찬가지로 ‘뉴’로 표기된다. 지명 가운데서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에 있는 ‘과를류스(Guarulhos)’ 시¹⁹⁾와 에스피리투산투 주의 ‘리냐레스(Linhares)’²⁰⁾ 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문화일보》에는 “축구 대표 감독 코엘류가 맞아요”라는 기사가 나왔고,²¹⁾ 그로부터 한 달 쯤 뒤에 《동아일보》에는 “◇알림=본보는 5일자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한글 이름을 움베르토 쿠엘류로 표기합니다. 이는 3일 내한한 그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²²⁾라는 알림 기사가 실렸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는 ‘움베르투 코엘류’로 표기하도록 결정²³⁾했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서 그의 한글 이름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 팀 감독을 지낸 히딩크도 표기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히딩크는 1945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스페인의 프로 축구 팀 감독과 네덜란드 축구 국가 대표 팀의 감독을 지냈다. 그의 이름 알파벳은 ‘Guus Hiddink’. 문제는 그의 이름 ‘Guus’를 한글로 표기하는 데 있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 대회 때 그는 ‘후스 히딩크’²⁴⁾로 표기됐다. 네덜란드어에서 ‘g’는 ‘ㄱ’ 또는 ‘ㅇ’으로 발음²⁵⁾된다. 2000년 12월 1일

18) 포르투갈어의 ‘o’는 악센트가 없을 경우 대개는 [u]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민우. 《세계지명사전》(1989, 서울 : 聯合通信). p. 132.

19) 상계서, p. 27.

20) 전계서, p. 127.

21) 《문화일보》 2003. 1. 8. 24면 참조.

22) 《동아일보》 2003. 2. 5. 49면 참조.

23) 2003년 2월 20일의 제5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 사항 가운데 ‘인명’편 참조.

24) 《98 프랑스 월드컵 축구 선수명 표기집》(1998, 서울 :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 p. 70.

에 개최된 제3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 ‘휘스 히딩크’로 표기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그 표기를 따르는 신문은 많지 않았다. 히딩크 본인이 ‘거스 히딩크’라고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체육부 기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월드컵 축구 대회 개막을 며칠 앞두고 편찬된 《2002 FIFA 월드컵 축구 대회 선수명 표기집》에서는 ‘거스 히딩크’²⁶⁾로 표기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일반 용어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의 화폐 단위인 ‘real’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지음은 ‘헤알’에 가깝지만 한글로는 ‘레알’로 표기해야 맞다.²⁷⁾

한편, 중앙일보에서는 ‘생명의 신비를 벗긴다’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2000년 5월 22일자 1면에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한 ‘사고(社告)’를 실었다. 그 사고에서는, ‘그동안 국내 언론에선 게놈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이는 일본 및 독일식 발음이며 미국과 대다수 학자들은 지놈으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본지는 현지 발음 원칙에 따라 앞으로 게놈 대신 지놈으로 표기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신문사의 홍혜걸 기자는 1주일 뒤,²⁸⁾ ‘취재일기’란에서, “미국 유학 시절 게놈으로 발음했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사에 줄곧 지놈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서야 10년 숙원을 풀었습니다.”라는 이인근 생화학 박사의 말을

25) 이민우, 전게서. p. 35 ‘그로닝겐’ 항 참조; 《독립신문 100돌기념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下)》. 전게서. p.96R. “ ŋg : <h>, 때로는 <g> Groote 호로테, Goltzius” 항 참조; “네덜란드에서 ‘g’는 한국어로는 적절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연구개 마찰 유성음이다. 그러나 ‘ㅎ’이 가깝다. 같은 이치로 화가 반 고흐(Van Gogh)의 네덜란드어 발음은 ‘반 호호’에 가깝다. ‘k’는 단어 앞머리에 오면 ‘ㅋ’으로 읽히지만 마지막 음일 경우 ‘ㄱ’으로 발음한다.” 《동아일보》 2002. 6. 21. 53면 참조.

26) 《2002 FIFA WORLD CUP 선수명 표기집》(2002, 서울 :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재단법인한국언론재단). p. 51.

27) 제19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1997. 11. 19.) 결정 내용 중 <국명·수도명·화폐명·공용어명> 참조;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2000, 서울 : 현암사). pp. 161~162; 《한국일보》 1999. 1. 14. 9면 <브라질, 금융공황 위기> 기사에서는 ‘헤알’과 ‘레알’을 섞어서 사용했다.

28) 《중앙일보》 2000. 5. 29. 참조.

인용하면서 그의 “‘지놈’이라야 하는 이유”를 써 나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놈(genome²⁹⁾)’은 유전자를 뜻하는 gene의 어두와 염색체를 뜻하는 chromosome의 어미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1930년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세계 과학을 주도하면서 에네르기가 에너지로 변모했듯 ‘genome’은 자연스럽게 영어식 발음인 ‘지놈’으로 표준화됐다. 독일과 일본 과학자들도 국제학회에선 모두 지놈으로 발음할 정도다. 하지만 유독 국내 언론만 이민 국제학회에서 용도폐기된 독일과 일본식 발음인 게놈을 고집해 왔다.”는 것이다.

게놈의 표기 문제로 논란이 일자 제33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³⁰⁾에서는, ‘Genom’을 ‘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염색체’라고 풀이하고, 그 표기가 ‘게놈’임을 거듭 확인하면서³¹⁾ 각 언론사에 안내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 “외래어 표기는 국어생활의 표기와 어형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genome’의 우리말 표기는 종전대로 ‘게놈’으로 한다.”고 밝혔다.³²⁾

이처럼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원음주의와 현실음주의는 신문 제작 현장에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³³⁾ 영어와 같은 다국어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 당연히 한글 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신

29) 《편수 자료 II-1 외래어 표기 용례(일반 외래어)》(1987, 서울 : 문교부). p. 118과 《외래어 표기 용례》(1995, 서울 : 세창출판사). p. 165에서는 원어 ‘genome’이라고 영어식 알파벳을 밝혔다. 그러나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상)》(1999, 서울 : 두산동아). p. 303에서는 ‘Genom’으로 독일어식 알파벳을 원어로 소개하고 있다.

30) 2000년 5월 30일 개최.

31)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Genom’의 어원을 설명하고, 1920년 독일의 식물학자 벙클러가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그 표기가 ‘게놈’임을 확인했다. 《국립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국어 생활 질의응답 자료집(일반용)》(2001,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p. 116.

32) 장진한, 《이젠 국어사전을 버려라》(2001, 서울 : 행담). pp. 25~26.

33) 《圖書新聞》1995. 8. 28. 2면 <한글 맞춤법의 실제와 적용②-외래어 표기법 적용 ‘갈팡질팡’> (박진희 기자) 참조.

문사 간에 통일되지 않고 쓰이는 표기 가운데 하나인 영어의 ‘super’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낱말의 발음 기호는 [sju:pər] [sú:pər]³⁴⁾인데, [sju:pər]는 영국식 발음 기호이고, [sú:pər]³⁵⁾는 미국식 발음 기호이다. ‘외래어 표기법 해설’ 제3장 표기 세칙 제1절 영어의 표기에 따르면, ‘영어의 표기는 미국 영어에서 차용된 외래어는 미국식 발음을, 영국 영어에서 차용된 것은 영국식 발음을 제2장 표1의 대조표와 본 영어 표기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슈퍼’ 또는 ‘수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외래어 표기 용례³⁶⁾에서는 영국식 발음 기호대로 ‘슈퍼’를 채택³⁷⁾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미국식 발음인 ‘수퍼’라고 표기하고 있다.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표기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표와 상호, 영화 제목 등이다. 상호의 경우, 외국의 기업이 국내에서 한글로 등록한 표기와 본국의 원어에 따른 표기가 다른 데서 갈등이 빚어진다. 이는 취재 부서 기자와 교열자 사이의 마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약칭 ‘HP’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 기기 회사 ‘휴렛팩커드/홀렛팩커드(Hewlett-Packard)³⁸⁾, ‘아울렛/아웃렛(outlet)³⁹⁾, ‘씨티은행/시티은행(Citibank)’ 등 상호를 비롯하여, ‘쥬라기 공원/쥐라기공원(Jurassic Park)’, ‘리셀 웨폰/리셀 웨폰(Lethal Weapon, 1987)’, ‘그랜드 캐년/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 The Hidden Secrets)’, ‘내쇼날 시큐리티/내셔널 시큐리티

34) 윤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영한 대사전(ENGLISH-KOREAN DICTIONARY)》(1999, 서울 : 금성출판사). p. 3236.

35) 《NEW WEBSTER'S DICTIONARY AND THESAURUS of the English Language》(199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ZICON PUBLICATIONS, INE>). p. 993.

36) ‘슈퍼마켓(supermarket)’, ‘슈퍼바이저(supervisor)’, ‘슈퍼볼(superbowl)’ 등. 《편수자료 II-1(외래어 표기 용례-일반 외래어)》(1987, 서울:문교부). p. 283;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 용어》(2002,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p. 558. 참조.

37) 장진한, 전개서, pp. 275~276.

38) 이 회사의 한국 법인 이름은 ‘한국휴렛팩커드㈜’지만 원어에 따른 표기는 ‘홀렛 팩커드’가 맞다. 제11차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위원회(1996. 5. 16.) 결정 사항 참조.

39) 표기법대로 적으면 ‘아웃렛’이 맞다. 하지만 복합상가 이름은 ‘아울렛’으로 쓰고 있다. 제16차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위원회(1997. 5. 30.) 결정 내용 참조.

(National Security)', '드림캐처/드림캐처(Dreamcatcher)' 등 영화 제목도 있다. 상품 이름 가운데는 임포텐츠 치료제 '비아그라(Viagra)'가 있다. 이는 힘을 뜻하는 'Via'와 즐거움(남성의 분비물)을 뜻하는 'gra'의 합성어로, 미국의 파이저사가 개발한 의약품 이름이다. 그런데 파이저사의 한국지사 에서 상표명을 '비아그라'로 신청하는 바람에 '바이애그라'가 아닌 '비아그라'로 표기가 결정⁴⁰⁾됐다.

외래어 표기는 어렵고 까다로우며, 정확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해 줄 없다는 한계점 외에도 우리말을 경시하거나 사장시킬 우려도 강한 만큼 되도록이면 외래어로 적기보다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는 아파트 이름에서 외래어를 추방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자에게 우리말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권장⁴¹⁾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둘기, 들국화, 민들레, 복사꽃, 하나로 등 전국 652개 아파트 단지가 우리말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지금은 외래어로 된 이름을 붙여야 분량이 더 잘 되기라도 하는 듯이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외래어 이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 사람 이름 표기의 혼란상

한국인 이름의 경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맞춤법 규정에 따른 표기와 주민등록표상의 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신문사 편집국에서도 해당 부서 간에 승강이가 벌어지곤 한다.

우선, 성(姓) 가운데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李', '柳', '羅'씨 성에 대해 '이'가 아닌 '리'로, '유'가 아닌 '류'로, '나'가 아닌 '라'로 표기해 줄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 정부 국어심의회에서는 1992년 10월 '고시'를 통해 한글 맞춤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유', '나'로만 적

40) 제22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1998. 6. 17.) 결정 내용 중 <일반 용어> ; 안정효. 전거서, pp. 161~162; 《한겨레》 1999. 1. 16. 6면 참조.

41) 《세계일보》 1991. 1. 5. 18면 참조.

도록 했다.

대법원은 1994년 7월 30일 호적예규 제499호를 제정,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1996년 10월 25일 개정하여 호적예규 제520호로 고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므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글 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 3. ‘성명란’의 기재방법=…(2)…한자 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한자사전에 없는 한자이거나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한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또는 우송으로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 기재한다.”

라고 분명하게 예시하여 못박고 있다.⁴²⁾

또, ‘외국의 국호, 인명, 지명의 표기방법’⁴³⁾에 따르면,

“1. 호적부와 호적신고서에 외국의 국호·인명·지명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서에 기재된 외국 국호와 지명의 한글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신고서에 붙이고, 호적부에는 표기법에 맞도록 기재(인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다. 3.

42) 이 규정에 따라 인명 표기를 할 경우, 출고 부서와의 마찰은 없어질 것이나 한글 맞춤법 규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43) 1998. 6. 3. 개정 ‘호적예규 제548호’.

신고서에 외국의 인명, 지명을 표기함에 있어 외국어(한자 포함)의 표기만 있고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호적에도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의 표기가 한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성명란의 인명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 이외의 인명 및 지명 등은 우리나라에서의 한자 발음대로의 한글로 기재한다.”

고 명시돼 있다. 즉, 이름 표기에 관한 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라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일부 신문에서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표기를 해주기도 한다. 이름의 경우 성보다 더 많은 충돌이 생긴다. 이를 반영, 대다수의 신문에서는 예술·체육인의 예명과 문인들의 필명 등에서는 두음법칙을 무시한 표기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표기는 일반인에게도 확산되어, 주민등록표상의 이름 그대로 한글 표기를 해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다.⁴⁴⁾ 나아가 이 문제는, 남북 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북한 관련 기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 인명 표기 문제로 이어진다.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인명, 지명, 기타 고유명사 표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2. 남북한 언어의 혼란상

남북한은 형태주의와 음소주의에 따라 각기 맞춤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된 지 55년이나 되지만, 우리말로써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남북한의 맞춤법의 원리가 같기⁴⁵⁾ 때문이다. 그런데 세척상의 차이로 똑같은 단어가 달리 표기되기도 한다. 그 결과 언어의 이질

44) 김덕용(金德龍), 선동열(宣東烈), 양택식(梁鐸植), 이상용(李相瀾), 임창열(林昌烈), 황우여(黃祐呂) 씨 등.

45) 《독립신문 100돌기념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下)》. 전개서. <제10장 북한 말글 제4절 문체 비교(이주행)>. pp. 547~548.

화가 심각하다⁴⁶⁾고 할 수는 없겠⁴⁷⁾지만,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거나 어문 규정이 다른 점이 발견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異質化) 갈수록 심각’⁴⁸⁾하다거나, ‘남남북녀 대화 통역 시대 올지도’⁴⁹⁾ 모른다는 지적도 한다.

특히, 과학기술 용어와 동식물 이름, 맞춤법 관련 용어 등 전문 용어와 띄어쓰기 규정, 외래어 표기 등은 통일 이후의 국민 통합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럴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1) 남북 간 이질적인 어문 규범

남북한 간에 서로 다른 규범은 뭐니뭐니 해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이름과 그 순서다. ‘조선말규범집’ 제1항에 따른 북쪽의 한글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남쪽과 달리, 괄호 안의 두 번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음에서의 ‘ㅇ(이응, 응)’은 오직 받침으로서만 쓰인다.

46) “국립국어연구원이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년 사회과학출판사)과 남한의 ‘금성관 국어대사전’(1991년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1994년 민중서림), ‘속담사전’(1989년 일조각) 등 3개 사전에 실린 속담과 관용구를 비교분석해 최근 펴낸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보고서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이 가운데 남한 사전에는 없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그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다. ‘닭알 통변’(외국어룰 아주 조금 할 수 있는 수준), ‘낫질할때 찬 초갑’(방해가 되는 성가시고 거추장스런 존재), ‘게사니 부리가 있다’(명백한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을 놀리는 말), ‘까박을 붙이다’(트집을 잡다) … 등이 그것이다.” 《서울신문》 1996. 3. 1. 참조.

47)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정순기 소장은 1995년 4월 2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국학 유럽대회에서 ‘조선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이론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분단역사가 50년간 지속되면서 양쪽 언어는 어휘구성, 철자법, 발음, 띄어쓰기, 외래어표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법구조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金昶熙기자) 1995. 4. 26. 참조.

48) 《서울신문》 1996. 3. 1. 참조.

49) 《세계일보》 1999. 1. 28. 참조.

ㄱ(기읍, 그) ㄴ(니은, 느) ㄷ(디은, 드) ㄹ(리을, 르) ㅁ(미읍, 므) ㅂ(비읍, 브)
 ㅅ(시읏, 스) ㅇ(이응, 응) ㅈ(지읏, 즈) ㅊ(치읏, 츠) ㅋ(키읏, 크) ㅌ(티읏, 트)
 ㅍ(피읏, 프) ㅎ(히읏, 흐) ㄱ(된기읏, 꼰) ㄷ(된디은, 드) ㅂ(된비읍, 뵤) ㅅ(된시
 읏, 쏜) ㅈ(된지읏, 쏜)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ㅞ(애)
 ㅟ(에) ㅠ(예) ㅢ(외) ㅤ(위) ㅥ(의) ㅦ(와) ㅧ(워) ㅨ(왜) ㅩ(웨)

이처럼 남북 간에 자모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국어 사전을 찾을 때 매우 헷갈린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북쪽의 사전을 뒤적이는 사람들은, 북쪽에서는 왜 이렇게 찾는 낱말이 안 나올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남쪽과 북쪽의 어문법 중에서 다른 규정은 띄어쓰기다.

첫째, 복합어를 구성하는 개별 단어들을 남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고, 붙이는 것을 ‘허용’하는데(‘한글 맞춤법’ 제50항. [예] 하루 평균 생산 실적), 북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붙인다(조선말규범집 띄어쓰기 1~3항. [예] 하루평균생산실적). 둘째, 관형어를 남쪽에서는 모두 띄어 쓰는데([예] 좋은 것, 걸어 가고 있는 분, 그 때문에), 북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띄지만, ‘합친 말의 구성부분으로 들어간 것’은 붙인다(좋은것, 걸어가고있는분, 그 때문 에). 셋째, 의존명사를 남쪽에서는 띄어 쓰는데(한글 맞춤법 제42항.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먹을 만큼 먹어라), 북쪽에서는 앞에 오는 단어가 무슨 품사든 간에 붙여 쓴다(‘조선말규범집’ 맞춤법 제3항. [예] 아는것이 힘이다, 먹을만큼 먹어라). 넷째, 보조용언을 남쪽에서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을 허용’하는데(‘한글 맞춤법’ 제47항. [예] 불이 꺼져 간다, 먹고 떨어지다), 북쪽에서는 ‘토(어미)가 붙은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 것’은 원칙적으로 띄어쓴다고 규정하고, ‘고, 아, 어, 여’ 등에 후행하는 보조 용언의 붙여쓰는 경우를 다수 규정하였다(‘조선말규범집’ 띄어쓰기 제 10항. [예]불이 꺼져간다, 먹고떨어지다).⁵⁰⁾

50) 송기중, 전게서, p. 519; 남북한의 띄어쓰기 규정 비교는, 김민수 편저. 《김정일 시대

고유명사의 경우 표기가 다르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동식물의 이름은 얼마나 같이 사용하고 있을까? 지난 98~99년 약 여섯 달 동안 남북한의 국어사전을 놓고 동식물 이름 한글 표기(국명)를 비교한 일이 있다. 그 결과 비교한 1354개 동식물 이름 가운데 25.7%에 해당하는 348개는 남북한이 완전히 달리 쓰고 있었다. 불가사리(삼바리), 얼룩말(위라말), 거위(게사니), 벽오동(청오동나무), 사철나무(푸른나무), 산초나무(분지나무), 씬바귀(사라구) 등이 대표적이다.⁵¹⁾ 이러한 전문 용어의 이질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할 가능성이 짙은 만큼 학제(學際) 연구를 통해 시급히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의 이질화도 가볍게 보아넘길 사안이 아니다.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⁵²⁾상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면에서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기, 1음운 1기호로 적기, 7중성⁵³⁾ 사용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쪽에서 파열음의 거센소리(격음) 표기를 택하고 있는데 비해 북쪽에서는 일부 된소리(경음)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남쪽과 달리 북쪽에서는 ‘ㄴㄴ’, ‘ㄹㄹ’ 등으로 ‘ㄴ’과 ‘ㄹ’을 첨가어로 사용하는 대신, 남쪽에서 ‘ㄹㄹ’로 적는 표기를 일부에서는 ‘ㄹ’로만 표기하고 있다.⁵⁴⁾ 그 결과, ‘덜렘마’, ‘맘모스’, ‘런닝’, ‘탄닌’, ‘카베쯔’(캐비지), ‘다쁘’(땀), ‘째’(젼) 따위의 표기가 나온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낱말이지만, 심지어는 표기의 차이로 인해 의미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말도 있다. 일부 외래

의 북한언어-북한의 띄어쓰기 규정과 실제, 그리고 전망(정명숙)》(1997, 서울: 태학사). pp. 73~95.

51) 황성규, <남북한의 한글 표기 비교-식물·동물이름적기> 《말과 글》(한국: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제76호(1998년 가을호, pp. 15~36), 제78호(1999년 봄호, pp. 17~26), 제79호(1999년 여름호, pp. 10~23), 제80호(1999년 가을호, pp. 22~32), 제81호(1999년 겨울호, pp. 20~29), 제82호(2000년 봄호, pp. 31~49), 제83호(2000년 여름호, pp. 21~27) 참조.

52) 북한에서는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임.

53) ㄱ, ㄴ, ㄹ, ㅁ, ㅂ, ㅅ, ㅇ.

54) 《독립신문 100돌기념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下)》. 전게서. <제10장 북한 말글 제6절 외래말 적기 비교(김희진)》. pp. 582~601. 참조.

어 가운데는 남북 양쪽에서 사용하는 뜻이 다른 말도 있다. 남쪽에서는 ‘튀김’으로 순화했지만, 북쪽에서는 ‘템뿌라(tempero, 포르투갈어)’라고 하면 ‘एं티리’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마스크(mask)’의 경우, 남쪽에서는 ‘방독면·탈·보호구·얼굴생김새’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쪽에서는 ‘얼굴생김새’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⁵⁵⁾

2) 남북 간 다른 언어 환경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만큼 동음이의어도 많다. 같은 낱말이되 남북 간에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궁전(북한에서,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교양 수단들과 체육, 문화시설들을 갖추고 정치문화 교양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 ‘그이(남한에서 ‘그 사람’이란 뜻의 평어, 북한에서는 ‘그 분’이란 뜻으로 경어)’, ‘동무(북한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방조자(남한에서는 나쁜 일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사람, 북한에서는 좋은 일을 거들어 도와주는 사람이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상)’ 등⁵⁶⁾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달리 뜻은 같으나 표현을 달리하는 ‘이음동의어’도 상당수 있다.⁵⁷⁾ 그리고 북쪽에서만 사용하는 낱말도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고르롭다, 긍지롭다, 높뛰다, 눈무지, 늦잡다, 돌아치다, 드놀다, 떠이다, 만가동(滿稼動), 만부하(滿負荷), 만장, 말밥, 모대기다, 문문, 못다, 벼가을, 불피고, 살판치다, 석쉽하다, 소소리 등⁵⁸⁾이다. 또, 가슴노리, 까끈까끈, 땡하다, 피기눈, 말밥, 발뽀발뽀, 번대머리, 악성감모, 애동초목, 치머리, 토스레, 해구멍, 휘틀처럼 남쪽 사전에는 없고 북쪽 사전에만 나오는 낱말도 있다.⁵⁹⁾

55) ‘이즐’(이젤), ‘뽀초’(판초), ‘미끼씨’(믹서), ‘바라이데’(버라이어티쇼), ‘마다라스’(매트리스) 등. 《중앙일보》. 1996. 8. 16; 《조선일보》 1996. 8. 16. 참조.

56) 《독립신문 100돌기념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下)》. 전계서. <제10장 북한 말글 제4절 문체 비교(이주행)>. pp. 527~528.

57) 이주행, 전계서, pp. 530~531.

58) 이주행, 전계서, pp. 528~530.

남쪽의 신문 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 외래어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북쪽의 기사에서는 오랫동안 널리 쓰여 온 외래어만이 사용된다. 따라서 남쪽 사람들은 북한 신문의 외래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북쪽 사람들은 남한 신문의 외래어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⁶⁰⁾ 그 이유는, 남쪽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외래어가 급속히 들어와 미처 순화될 사이도 없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확산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¹⁾ 반면, 북쪽에서는 폐쇄 체제인데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양이 적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다듬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⁶²⁾ 게다가 광복 직후의 일본어 상당수 남은 데다, 표기도 일본어 식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외래어가 많다. 그밖에는 옛 소련과의 교류에 따른 러시아어가 많이 자리잡은 듯하다.⁶³⁾

또 하나, 남북 간의 언어문자 환경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 대중 전달 매체일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비록 전송 방식이나 기기의 디지털화 등으로 질적인 차이는 있을망정, 남북한이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매체라

59)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남북한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1998,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pp. 39~286. 참조.

60) 북에서 온 국어학자 류열 교수는 “남쪽아이들이 외국어를 너무 많이 써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고 한다. 《세계일보》2000. 8. 18. 2면 〈실왕실래〉 참조.

61) “국립국어연구원의 김희진 연구원이 남북한 국어교과서와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외래어 사용실태의 차이를 연구, 조사하여 1996년 8월에 내놓은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국어교과서 사용 외래어는 남한이 266단어로 북한의 129단어의 두배가 넘는다. … 남북한이 각각 바드민턴-바드민톤, 시럽-시롭, 이젤-이즐, 판초-뽀쵸, 마이신-미쥘린, 탱크-땅크, 믹서-미끼샤, 버라이어티쇼-바라이데, 매트리스-마다라스, 넥타이핀-넥타이꽃개로 쓰고 있다.” 《중앙일보》1996. 8. 16. 참조.

62) 이에 대해 이주행 씨는 “남한에서는 1985년에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주로 영어식 발음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1984년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소련어식 발음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한 탓으로 남북한의 외래어에 대한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주행, 전게서. p. 534.

63) 북쪽의 외래어에 대해서는, 《독립신문 100돌기념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 전게서. 〈제6절 외래말 적기 비교(김희진)〉. pp. 582~601.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나 개인휴대단말기(PDA), 휴대전화기와 인터넷이나 지리정보시스템(GPS) 등에 있어서는 남북한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 이러한 매체나 신호 전달 방식들은 수많은 정보를 생산, 가공, 전달, 수신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다중에게 전달된다. 그만큼 담아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전달 속도도 최속 당하고 있다. 신문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는 만큼 새로운 용어도 늘어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외래어로 채워진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미처 순화할 새도 없이, 외국어 상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더러는 한글 표기만 한 채 지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중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지난날에는 한자어가 국어 사전의 대다수 표제어였다면, 오늘에는 영어권 등의 낱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한 언중의 의사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외래어를 꼽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 전달의 속도 경쟁에 접어들다 보니 구체성을 띤 낱말들을 축약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는 전문용어, 단체이름 따위가 약어 형태로 널리 세력을 넓혀 나가기 때문에, 한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지켜보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지경이다. 약어가 마침내는 새로운 낱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등장, 원어를 잊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 대신 교과서에서 우리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⁶⁴⁾도 있다.

64) 우리말 연구가 배우리 씨가 1975년부터 1993년까지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썩돌(화강암) 큰물(홍수) 막창자(맹장) 큰골(대뇌) 어림값(근사값) 세모(삼각형) 네모(사각형) 원둘레(원주) 등 교과서에서 사라진 우리말이 확인된 숫자만도 400여 개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3. 11. 21. <우리말 교과서에서 사라져간다> (홍석준 기자) 참조.

3. 맺는 말

세계 각국이 자국어 보호,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⁶⁵⁾하고 있다. 그들 나라 가운데 가장 널리 소개된 나라가 프랑스와 중국일 것이다.

1994년에 제정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은 애초에 정부의 공문서와 안내문 및 공공 분야에서의 외국어 사용을 금지했었으나 헌법평의회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다소 완화된 것을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공적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 학술원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과학기술 분야의 외래어(특히 영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예로 들면, 영어의 ‘CD-ROM’과 ‘@’(at)이다.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낱말을 프랑스어로 바꾸면서 결국은 영어식 프랑스어로 만들어 각각 ‘세데롬(Cédérom)’⁶⁶⁾과 ‘아로브[ar(r)ob(e)]’⁶⁷⁾로 철자까지 바뀌 읽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 언어문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언어문자 업무에 대한 중장기 계획 세우거나, 소수민족의 언어 문제에 대한 규범과 기준을 만들고 감독하며, 표준어 보급 및 표준말 측정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중국 교육부의 19개 ‘청·실·사·위(廳室司委)’ 가운데는 언어문자응용관리사(語言文字應用管理司)와 언어문자정보관리사(語言文字信息管理司)가 있어 나라의 모든 어문 정책을 관리한다. 모든 외래어의 표기는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막강한 권위를 인정받는다. 중국 정부의 자국어 보호 정책은 매우 철저하여, 이전에는 문자개혁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두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골뱅이’라고 불리고, 프랑스에서 ‘아로브’라고 읽는

65) 프랑스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캐나다 퀘벡 주의 ‘언어 정화법’(1988년), 폴란드의 ‘국어법’(2000년) 등.

66) 《중앙일보》1996. 6. 6. <英語 ‘CD롬’, 佛語 ‘세데롬’> (박장희 기자) 참조.

67) 프랑스의 ‘용어 및 신조어 심의 위원회’에서는 ‘arobase’(아로바즈)로 표기하기로 했다. 《문화일보》2002. 12. 12. 7면 <오후여담> 참조.

‘@’는 중국에서 ‘취안 에이(圈a)’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 각국의 자국어 보호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문의 언어 혼란상을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 사람 이름 표기 등을 중심으로 몇몇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언어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훑어 보았다. 그 결과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자.

우선, 남북한 간의 언어 이질화를 부채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북한 사이의 언어 이질화가 심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에 양쪽 주민이 무리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말글을 사용함으로써 손가락질 받거나 배척당하지 않고 일체감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 통합을 앞당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규범어 따로, 생활어 따로 쓰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간이나 계층간, 세대간, 매체간에 통일된 맞춤법이나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식 결정한 표기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말과 글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방송과 신문·출판물 등의 서로 다른 표기는 학생들에게 바른 말글 생활이 어렵게 하고, 맞춤법 등 여러 어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준법 정신이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문제가 된다. 규범 언어와 생활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⁶⁸⁾이다. 외국어를 우리 말글로 옮길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거꾸로, 우리 말글을 외국어로 옮기기 위한 자

68) 실제로 옛 소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동포 교사들은 국내 연수 때, “‘넷가’나, ‘내가’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려관’ ‘녀자’와 ‘여관’ ‘여자’ 가운데 어느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 전에는 북쪽의 자료에 의존하여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992. 5.22. <南北맞춤법 달라 큰 애로> 참조.

동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말글의 해외 보급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업무를 어문정책 관련 기관으로 통합하는 한편,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⁶⁹⁾ 여러 해 전에, “독일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에 3억마르크(1,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 독일어 전파에 힘쓰고 있으며, 문화계에서도 ‘영어에 빼앗긴 세계어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⁷⁰⁾가 있었다. 우리가 타산 지식으로 삼을 만하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 정책의 입법화를 통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어 기본법 제정안’은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9) 《문화일보》 2003. 1. 16. 7면 〈오후여담〉 참조.

70) 《문화일보》 1996. 5. 27. 〈독일어를 세계공용어로 만들자-獨정부 언어수출 심혈〉 (이미숙 기자) 참조.